

# 해남군, 광주~완도 고속도로 2단계 조기착공 건의

## 1단계와 병행해 공사기간 단축 지역균형발전 상징 도로망 기대

해남군이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의 빠른 추진을 위해 2단계 사업의 조기 착공을 건의하고 나섰다.

16일 해남군에 따르면 전남 '2024년 국도비 현안사업 발굴보고회'를 가졌다. 보고회에서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건설 등 SOC기반 구축 현황을 점검하고 지역발전의 장기 동력이 될 기반 사업들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한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고속도로 건설 1단계 사업기간이 연장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2단계 조기 착공을 통한 사업의 병행 추진 방안 등을 모색해 공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광주~나주~영암~강진~해남~완도를 잇는 광주~완도 고속도로 사업은 3조 4000억원을 투입해 총연장 88.61km, 4차선으로 건설된다. 광주 서구 벽진동~강진 성전 1단계(51.11km), 강진 작천~해남 북평 2단계(37.5km)로 나뉘어 추진되고 있다.

사업비 1조 7313억원이 소요되는 2단계 구간은 지난해 국토교통부의 제1차 고속도로 5개년 계획에 '중점사업'으로 선정됐다.

반면 2024년 준공 예정이었던 1단계 구간은 현재 준공률 70%이지만 최근 나주구간에서 유적이 발견돼 노선이 변경되면서 공사기간이 2년가량 연장됐다.

군은 1단계 사업은 연장된 데 반해 2단

계 사업이 우선 추진할 신규 신설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2단계 사업을 1단계 사업과 병행해 추진할 수 있도록 전라남도 와 꾸준히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2차 고속도로 계획의 연장으로 해남 남창~땅끝구간 14.4km에 대한 고속도로 개설도 적극 건의하고 있다.

2026년부터 2030년 추진되는 3차 계획을 통해 국도 최남단 땅끝까지 이어지는 교통 접근성을 제고하고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전남권의 고속도로 접근성을 개선해 지역균형발전의 상징적인 도로망을 완성한다는 전략이다.

해남군에는 지난해 솔라시도 진입도로가 개통한 데 이어 2025년 보성~해남~임성 간 철도 개통, 2027년 국도77호선 연결도로 개통 등 대규모 SOC 기반 구축이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이밖에 해남군은 솔라시도 기업도시 활성화 등 늘고 있는 서남권 관광 수요에 대비하고, 국립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 조성, 코로나 이후 온오프라인 농수 특산물 소비 증가에 따른 물류 개선 등 급속히 달라진 지역여건에 따라 고속도로 조기 개통 필요성을 중앙부처에 건의해 사업추진에 탄력을 이끌어내고 있다.

명현관 해남 군수는 "최근 해남군은 각종 대규모 사업들을 유지하면서 추진 속도를 높이고 있지만 SOC 등 기반시설이 열악해 지역발전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고속도로 개설로 각종 역점 추진에 날개를 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원활한 사업추진과 3차 건설계획 반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해남=전연수 기자

## 강진군, 명품 청자 30% 할인판매

강진군이 오는 23일부터 3월1일까지 열리는 제51회 강진청자축제 기간 동안 명품 청자를 최대 30% 할인 판매한다.

16일 강진군에 따르면 강진청자박물관에서 제작한 관요 제품은 전 품목 30%, 민간 도예업체가 제작한 민간요 제품은 업체별로 최대 30%까지 할인한다.

23일 전통방식 그대로 화목가마에서 요출된 청자 작품에 대해 즉석 경매 행사를 열어 관광객에게 재미를 선사할 예정이다. 청자 신상품과 텀블러, 책갈피 등 청자 빛깔과 문양을 적용한 청자굿즈를 선보인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코로나19로 인해 청자 판매가 위축된 상황에서 온라인 경매를 통한 관심이 높았다"며 "강진고려청자 우수성을 알리고 동시에 청자문화 계승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진=김윤복 기자

## 나주 노안 청정 돌미나리 출하

지하 120m에서 끌어 올린 '1급수' 만을 먹고 자라 푸른 빛깔이 선명한 나주 노안면 돌미나리가 겨울 제철을 맞아 출하가 한창이다.

16일 국내 최대의 미나리 집산지인 나주시 노안면 학산리 일대는 지난 9월 모종을 이식한 뒤 이뤄진 겨울 미나리 채취로 작업 인부들의 손길이 분주하다.

시설 하우스 안은 온통 푸른빛과 짙고 향긋한 내음으로 가득하다.

이곳 미나리 재배규모는 263ha(79만 평)에서 연간 2800톤이 생산되고 있다.

4kg들이 상자로 출하되는 돌미나리는 10월 말부터 이듬해 5월까지 7개월 동안 출하되며 나주배와 함께 지역을 대표하는 특산물로도 유명하다.

김봉옥 노안돌미나리영농조합법인회장은 "겨울이 제철인 노안 돌미나리는 일반 미나리보다 향이 짙어 건강식으로 좋다"고 말했다.

나주=조대봉·박승엽 기자



나주 노안면 학산리 일대 돌미나리 재배농가(263ha 재배)가 겨울 제철을 맞아 본격 출하작업에 나서고 있다.

나주시 제공

## 가족 유형별 맞춤 복지 추진 장성군, 다문화·1인 가구 등

장성군이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착 지원하는 '2023년 가족 맞춤형 복지사업'을 추진한다.

16일 장성군 가족센터에 따르면 올해 다양한 가족 유형에 대응하는 복지사업을 통해 양질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장성군 가족센터의 전신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다. 이전까지는 다문화가족 교육·문화사업과 상담 관리, 결혼이주여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진행했다.

그러나 핵가족, 맞벌이, 1인 가구 등 가족 유형이 점차 다양화됨에 따라 범위를 확장해 보편적인 가족 복지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1인 가구를 위한 중장년 집밥 만들기, 심리상담 코칭이 운영된다.

한부모, 맞벌이 가정을 대상으로 한 아이돌봄 서비스도 이어간다. 장성군은 아이돌봄 본인부담금을 추가로 지원해 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에 노력하고 있다. 다문화가족 친정보내기 사업도 5가구 늘린 25가구를 지원한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가족 유형에 부합하는 맞춤형 복지사업 추진으로 행복하게 사는 '장성군민 행복시대'를 열어 가겠다"고 말했다.

장성=유봉현 기자

## 윤병태 나주시장, 점심·간식 소통... 공직분위기 개선

윤병태 나주시장이 경직된 공직 분위기를 개선에 발벗고 나섰다.

16일 나주시에 따르면 매달 신규 직원들과 구내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하는가 하면 격주에 걸쳐 과업부서 사무실을 직접 찾아 간식을 나누는 등 직원들과의 격의 없는 소통에 시간을 아끼지 않고 있다.

본인 결혼, 가족상 등 애경사 이후 복귀한 직원들과 티타임을 통해 축하 또는 위로, 격려를 전하며 심리·정서적 지지를 더하고 있다.

보통 간부급을 제외한 일반 직원들과 시장과의 점심, 간식 자리는 중무·사무식 또는 매년 취임 주년에 맞춰 이뤄지는 단순 연례행사로 여겨져 왔다.

반면 윤 시장은 취임 이후 매달 짝 들어



찬 일정 가운데서도 직원들과 소통 일정을 우선적으로 꼼꼼히 확인하고 있다.

직급과 관계없이 격의 없는 대화로 세대 간 눈높이를 맞추고 상호 존중, 공감하는 조직 문화 조성을 위해 삼급자부터 출신수범한다는 취지에서다.

윤 시장은 올해 1월19일자 신규 임용된 직원 4명과 최근 구내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나눴다.

직원들로부터 공직 입문 소회부터 업무 스트레스 요인, 최근 관심사나 고민 등을 경청한 윤 시장은 공직 선배로서 경험담을 토대로 진솔한 조언을 전했다.

부서별 찾아가는 간식 소통은 지난해 연말 미래전략과 사무실 짝방 방문을 시작으로 격주 이뤄지고 있다. 이후 축산과(12월), 올해 1월 교통행정과, 건설과를 방문했으며 2월 들어 지난 14일 교육지원과 사무실을 찾았다.

윤 시장은 이 자리서 지난 해 평생학습 분야 수상 성과를 언급하며 직원들과 화기애애한 대화를 주고받았다. 민선 8기 공약이자 주요 시정 방침인 '명품교육도시' 조성을 위한 시책 추진에 고생하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나주=조대봉·박승엽 기자

## '5차례 유찰' 광양커뮤니티센터 수영장·목욕탕 폐쇄 결정

### 광양시 "다른용도로 사용키로"

광양시민들이 즐겨 찾던 광양커뮤니티센터 레포츠시설인 수영장과 목욕탕이 폐쇄된다. 광양시는 시설을 폐쇄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키로 했다.

16일 광양시는 2022년 11월30일까지 레포츠시설을 운영하던 민간 운영자의 계약기간이 종료됐으며 5회에 걸쳐 입찰했으나 유찰됐다고 밝혔다.

5회차까지 유찰된 이유는 성황 스포츠

센터 수영장 개장 등 영향으로 수익이 나지 않을 것을 염려한 사업자들이 입찰을 포기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광양시는 이에 따라 커뮤니티센터 레포츠시설 운영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9일 제1회 광양시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커뮤니티센터 레포츠시설을 폐쇄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시정조정위원회는 부시장(위원장)과 국·소장으로 구성됐으며 시 주요 현안과

정책, 행정 능력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고 있다. 레포츠시설 폐쇄 결정은 운영자 모집에 따른 입찰공고가 5회까지 유찰된 것이 결정적인 요인이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커뮤니티센터 시설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 사전 방지, 성황 수영장 개장으로 인한 이용객 감소, 동일 생활 반경 내 수영장 중복 운영에 따른 행정력과 예산 낭비 등도 주요 요인으로 판단됐다.

광양=안영준 기자

## "전남배우 교육생 모집합니다" 광양시, 영화·드라마 보조출연

광양시는 오는 19일까지 영화·드라마 촬영에 참여할 '광양시 전남배우(보조출연 및 단역)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교육생 모집은 전남영상위원회가 시의 지원을 받아 추진 중인 '로케이션 장소 및 보조출연 배우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이다.

전남영상위원회는 모집된 교육생을 대상으로 3회차에 걸쳐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1회차(25일) 영화현장에 대한 이해와 전남배우 역량 강화 교육, 2회차(26일) 개인 프로필 촬영, 3회차(3월11일) 플랫폼 등록 및 수수료 전달을 진행할 예정이다. 2회차 개인 프로필 촬영 교육 과정에서 전문 헤어·메이크업 디자이너와 사진작가가 함께한다.

전남영상위원회 홈페이지(jnfc.or.kr)와 인스타그램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광양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광양=안영준 기자

## 모바일 걷기 '워크온 챌린지' 인기 보성군, 가입자 3000명 돌파

보성군이 2020년 11월부터 운영해 온 비대면 모바일 걷기 앱 '워크온(WalkON)'이 군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으며 참여자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

16일 보성군에 따르면 2020년 560명으로 시작한 보성군 워크온 참여자는 10대부터 60세 이상 참여자까지 다양한 연령층으로 구성됐으며 군민의 사랑에 힘입어 현재 가입자 수가 3000여명을 돌파했다.

'워크온'은 보성군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스마트폰 앱을 통해 사용할 수 있다. 월 1~2회 실시되는 챌린지(목표 걸음 수 달성)를 달성하면 성공 보상으로 보성사랑상품권 등 다양한 홍보 물품을 받을 수 있다.

참여자는 매일 시간대별 운동기록을 통해 △하루 운동량 확인 △개인 스케줄 관리 등을 할 수 있고 물품 수령 시 정기적 혈압, 당뇨, 체지방 측정(인바디 검사)을 받을 수 있다. 워크온 활성화로 보성군 걷기 좋은 길(15개 코스)도 큰 사랑을 받고 있다.

김은지 기자